

比較優位論의 適用限界 : 韓國農業의 경우

朱 宗 桓

東國大學校 農林大學長(農業經濟學科教授)

一. 問題의 所在

昨今の物價昂騰에 대한 對策으로 比較優位論의 입장에서 農畜産物의 輸入自由化施策을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經濟企劃院의 입장은¹⁾ 近者의 잇달은 批判에 의하여²⁾ 크게 後退한 느낌이 있다. 쇠고기의 輸入量을 1979年中에 22,000톤 水準으로 억제한다는 方針은 그 하나의 徵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價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農畜産物을 계속해서 國內産만으로 自給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主張이 經濟政策의 最高責任者에 의하여 꾸준히 表明되고 있음에 비추어³⁾ 比較優位論을 韓國의 農畜産業에 적용시키겠다는 經濟企劃院의 理論的立場은 變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筆者가 아래에서 比較優位論과 韓國農業과의 關係를 檢討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現實的인 問題에 대하여 理論的 檢討를 加하는 것이 農政의 올바른 方向設定을 위한 礎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二. 比較優位論의 理論的 檢討

國際分業의 利益을 主張한 學說로서는 Adam Smith의 絕對優位論이⁴⁾ 있고, David Ricardo의 比較優位論이 있으며,⁵⁾ 그후 이른바 Heckscher-Ohlin의 定

1) 經濟企劃院, 『80年代를 向한 새 戰略』, 1979年 1月 29日字, pp. 11, 22, 31, 32, 38; 同, 『1979年度 經濟運用計劃』, 1979年 1月, p. 101; 同, 『經濟安定化施策』 1979年 4月 17日字, p. 38 등 참조.

2) 朱宗桓, 「廢農政策主張 안 될 말 IMF韓圖대표 발로博士에 마친다」, 『朝鮮日報』 1979年 4月 12日字; 同, 「物價安定과 農畜産業」, 東國大學校 經商大學·農林大學主催 심포지움 『物價安定과 經濟開發戰略』 發表論文, 1979年 5月 11日(孔版), pp. 27-60, <『月刊 중앙출판』 1979年 5月號 pp. 29-41에轉載>

3) 經濟企劃院, 『經濟安定化施策』, *op. cit.* 및 그 이후의 정부당국자의 담화등 참조.

4) 朱宗桓, 『經濟學概論』, 一潮閣, 서울, 1977, pp. 905-6

5) *Ibid.* pp. 906-908

理⁶⁾를 거치 P. Schmucker의 「完全均衡化原理」⁷⁾ G. Herberler등에 의한 國際貿易의 純粹理論으로서의 一聯의 靜態的 均衡分析⁸⁾등이 있다. 그리고 이 理論들이 國際經濟理論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現實政策面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 理論의 內容에 관해서는 여러 教科書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그것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論議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明白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經濟企劃院이 내세우고 있는 比較優位論은 엄밀한 의미의 比較優位論과는 그 內容에 있어서 判異하다는 事實이다.

즉 經濟企劃院에서 발표한 『80年代의 새 戰略』에 나타난 이론바 比較優位論은 國際價格에 비하여 國內의 生産費가 비싼 農産物은 輸入하는 것이 國民經濟의 厚生을 증대시키는 길이라는 見解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比較優位論」이 아니라, Adam Smith의 「絶對優位論」의 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比較優位論의 입장은 실사 A國에 있어서 α, β 두 개의 商品의 生産費가 B國에 있어서의 α, β 두 개의 商品의 그것에 비하여 모두 비싸다 하더라도, A國이나 E國이 相對的으로 낮은 生産費에 의해서 生産할 수 있는 商品의 生産에 特化하여 그것을 國際的으로 交換하는 것이 交易當事國 모두의 利益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比較優位論은 1國內에서 生産되는 物品들 상호간의 生産費의 比較를 바탕으로 한 生産의 特化를 말하는 것이며 經濟企劃院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特定商品의 國際價格을 비교하여 國際價格이 相對的으로 싸면 그것을 輸入하는 것이 國民經濟的으로 유리하다는 主張과는 직접적인 理論的 관계가 없는 것이다.

經濟企劃院의 『80年代의 새 戰略』에서는 이것을 「比較優位」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國際經濟理論의 消化不充分에서 온 잘못이었다고 하겠다.⁹⁾

6) Eli Heckscher,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Ekonomisk Tidskrift*, 1919, reprinted in H.S. Ellis and L.A. Metzler ed.,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Blakiston Co., Philadelphia, 1949; Bertil Ohlin,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Kelvin Lancaster, "The Heckscher-Ohlin Trade model: A Geometric Treatment", *Economica*, February, 1957, pp. 19-39, etc.

7) 小宮隆太郎・天野明弘, 『國際經濟學』, 岩波書店, 「現代經濟學」第8卷, 東京, 1972, 第1部 第1章 第4節 參照.

8) Gottfried Herberler, "Some Problems in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June, 1950 및 本論文 註 10)의 論文等.

9) 朱宗桓, 「物價安定과 農畜産業」東國大學校 經商大學・農林大學, 『物價安定과 經濟開發戰略』, (東國大學校 開校 73週年 紀念 論文集), 1979, p. 43

이와같은 問題는 措置하고, 比較優位論 그 자체를 理論的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韓國農業의 現實에 적용시키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 본다면, 무엇보다도 이 理論이 몇가지의 엄밀한 假定위에 세워진 理論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比較優位論에는 여러가지 理論模型이 있다. 2國·2財·2生産要素 模型이 있는가 하면 多數國·多數財·多數生産要素 模型이 있다. 그러나 後者는 결국 前者 즉 2國·2財·2生産要素 模型에서 導出된 것과 結論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同一하다. 그리하여 보통 2國·2財·2生産要素 模型을 가지고 比較優位論을 설명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한 新古典派의인 靜態的 一般均衡分析의 手法을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엄격한 假定들을 내세우게 된다.¹⁰⁾

- (1) 生産物市場과 要素市場에 있어서 完全競爭의 條件이 充足되어 있다.
- (2) 生産物의 生産函數는 1次同次性 生産函數이다. 즉 規模에 관하여 收穫不變이다.
- (3) 各國에 있어서 生産要素의 總供給量은 一定하며, 技術的 知識, 消費者의 嗜好, 要素間의 所得分布등도 모두 不變이다. 즉 靜態에 관한 理論이며, 時間의 要素는 捨象되어 있다.
- (4) 自由貿易下에서는 生産要素價格은 均等化 된다.
- (5) 消費과 企業은 貨幣錯覺(money illusion)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극히 合理的으로 行動하며, 制度的 理由나 그밖의 理由 때문에 價格이 硬直化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勞動을 포함한 모든 資源은 언제나 完全雇傭(完全稼動)의 상태에 있다.
- (6) 生産과 消費에 관하여 外部經濟(또는 外部不經濟)는 존재하지 않는다.
- (7) 貨幣는 一種의 媒介物지만 존재할 뿐이며 國際貿易은 마치 "barter trade" (物物交換)과 같은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國際收支의 不均衡은 존재하지 않는다.
- (8) 貿易을 위한 輸送費의 問題는 거의 무시할 정로이며, 關稅나 그밖의 政府干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엄밀한 가정아래서 自由貿易은 파레토最適 Pareto optimality의 必

10) 比較優位論의 諸假定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Gottfried Herberler, *op. cit.*, pp. 223-240; James E. Meade, *A Geometry of International Trade*, Allen & Unwin, 1952, chaps. I ~ V; Kelvin Lancaster, "The Heckscher-Ohlin Trade Model: A Geometric Treatment," *Economica*, Feb. 1957, pp. 19~39; Richard E. Caves, *Trade and Economic Stru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Chap. II; Jagdish Bhagwati,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March, 1964, pp. 1~84; Gerald M. Meier, *The International Economics of Development*, Harper & Row, 1968, p. 11; 小宮隆太郎·天野明弘, *op. cit.*, pp. 12-16; 朱宗恒, 「經濟學概論」, *op. cit.*, p. 915, 919 등.

要限界條件을 充足시킴으로써 一般均衡의 狀態를 實現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假定下에서는 國內生産에 있어서의 限界轉換率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輸入可能財로 表示한 輸出可能財의 限界生産費), 外國貿易에서의 限界轉換率(輸入可能財로 표시한 輸出可能財의 價格) 및 國內消費에 있어서의 限界代替率以上 3者が 같아 진다는 것이며, 生産資源의 增大나 技術變化를 反映하지 않나므로, 各國은 比較優位에 따른 生産特化와 貿易에 의해서, 自國의 實質所得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貿易에 의한 滿足水準의 上昇의 크기는 貿易當事國間에 있어서의 比較優位格差의 크기와 各國需要의 相對的 差異의 크기에 의해서 左右된다. 各國의 需要條件, 要素比率, 各財의 生産技術係數의 類似性이 작으면 작을수록 貿易에 의한 利益은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各國의 國內價格比率 및 相對需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國際價格比率와 國內價格比率와 乖離는 더 크고, 따라서 貿易開始에 의하여 滿足水準이 向上된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¹¹⁾ 그리고 上記한 바 比較優位理論의 諸假定의 의미에 관하여 Gerald M. Meier는 다음과 같은 註를 달고 있다. 『이를 諸假定중의 어떤 것이 빠짐으로써, 그 結果, 各財의 私的 貨幣生産費比率와 社會的 實質生産費比率가 一致되지 않게 되면 自由貿易의 厚生效果는 修正되지 않을 수 없다.』¹²⁾

그러므로 比較優位論을 韓國經濟의 現實에 適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比較優位論이 理論的 前提로 삼고 있는 諸假定들이 과연 韓國의 現實에 있어서 얼마만큼 서로 附合되는 面이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前記한 比較優位論의 理論的 假定들은 韓國經濟내지는 韓國農業의 現實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假定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韓國에 있어서 오늘날 生産物 市場이나 要素市場이 寡占下에 있으며 完全競爭市場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明白하다.¹³⁾

(2) 生産函數의 1次同次性(收穫不變)의 假定도 技術進歩가 이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成立되지 않는다.

(3) 韓國經濟는 심한 動態的 發展過程에 있으므로 靜態理論을 가지고서는 이에 對處할 수 없다.

(4) 生産要素價格이 自由貿易을 통하여 國際間에 均等화된다고 假定하고 있으나

11) Gerald M. Meier, *op. cit.*, pp. 19-20.

12) *Ibid.*, p. 19

13) 朱宗恒, 『經濟學概論』, *op. cit.*, 第9編, 특히 pp. 579-84 참조; 金仁濟『寡占市場에서의 價格變動要因의 計量的 分析』,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9.

現實의으로는 國際間의 여러가지 制約으로 말미암아 要素價格의 國際間 均等化는 도저히 實現될 수 없는 狀況에 놓여 있다. 生産要素의 國際間 移動은 資本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勞動에 관해서는 매우 硬直의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만일 勞動의 國際間 移動이 完全開放되고 이르게 勞賃의 國際間 平準化가 이룩될 수 있다면 自由貿易이 우리에게 利益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모르나, 國際經濟의 現實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5) 勞動을 포함한 모든 資源이 完全雇傭의 상태에 있다는 假定은 韓國에서는 매우 非現實의이다.

(6) 外部經濟 또는 非經濟의 문제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眞正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捨象되어 있다.

(7) 國際收支의 不均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假定되어 있으나, 우리의 現實은 國際收支의 不均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 輸送費나 關稅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음으로 不拘하고 그것이 捨象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比較優位論을 韓國의 現實에 適用시켜 거기에서 輸入自由化政策의 根據를 찾아낸다는 것은 純粹한 理論的 立場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Joan Robinson의 다음과 같은 指摘¹⁴⁾은 매우 教訓的의이다.

『傳統的인 經濟學으로부터 나쁜 버릇을 배제하기란 곤란한 일이며, 사실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는 나쁜 버릇도 있다. 그러한 나쁜 버릇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즉, 現實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假說을 세우고, 假說에 입각하여 理論을 전개하여 '結論'을 구하고, 問題를 제기하지만, 이런 일들을 모두 完전한 循環論法的인 思考方式에 따라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하나의 예로서는…… 각국의 輸入과 輸出이 항상 均衡을 이루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國際貿易의 問題를 연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쓸모없는 遊戲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위험천만한 일은 지극히 단순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現實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模型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結論을 논리적으로 誘導하고, 그러한 結論을 사용하여 어떤 政策的인 提案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있어서 單純化를 위하여 설정된 假定이 그러한 政策을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얼마만큼 타

14) Joan Robinson & John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cGraw-Hill, London, 1973, p. 54. <朱宗植譯, 『現代經濟學批判』, 一潮閣, 서울, pp. 70-71>

당항가에 관해서는 단 한번의 검토도 없이 政策의 指針으로 이용하는 비릇이 있다. 이러한 습관으로서 가장 유명한 예는 完全競爭의인 私企業經濟에 관한 新古典派의 模型이다……』(下點은 筆者에 의함)

新古典學派의 比較優位論에 입각하는 貿易自由化論의 성격에 관한 Joan Robinson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韓國의 經濟學者和 經濟政策當局에 대하여 매우 示唆하는 바가 많다.

『現實의 經濟는 國家를 單位로 하여 發展해 왔다. 그리하여 學問的 思考도 愛國心과 分離될 수 없었다. 처음부터 國家의 富에 관한 研究는 자기 나라의 富에 관한 研究일 수 밖에 없었으며, 또 그 增大에 관한 研究였다. ……學問的 研究는 主로 政策의 背後에 있는 社會的 立場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動員되었다. ……經濟問題를 보는 道德的 政治的 觀點에 따라 問題提起의 方式이 다르고, 이 나아가서는 分析方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모아 왔다.』¹⁵⁾ 『政治經濟學에는 愛國心이 介入되어 있었기 때문에 普遍妥當한 善에 관한 標語 뒤에는 흔히 자기 나라의 利益에 대한 擁護論이 감추어져 있었다.』¹⁶⁾ 『自由貿易과 均衡理論에 관한 正統派의 學說은 第三世界의 知識人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들이 直面한 問題에 對해서는 適合한 것이 못된다. 均衡理論은 自由放任主義를 擁護하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지만, 發展을 政策의 目標로 看做하는 概念 自體가 벌써 自由放任主義와는 相反된 것이다.』¹⁷⁾

三. 比較優位論과 韓國의 農畜產業

比較優位の 理論은 各國의 生産條件이 주어져 있고, 技術의 變化가 없다는 前提下에서 主張되고 있지만 自由貿易을 制限함으로써 그 나라의 生産性이 向上될 수 있고, 遊休된 資源이 活性化될 餘地가 多分히 있을 경우에는 保護貿易이 그 나라의 利益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觀點에서 볼 때 農産物의 輸入自由化는 慎重을 期해야만 할 性質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農業의 産業的 特性은 무엇보다도 自然으로서의 土地와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놓여 있다는 點에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國土는 人間의 힘으로 쉽사리 增加시키거나 形態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點에 있어서 人間의 힘으로 쉽사리 增加시키거나 形態를 바꿀 수 있는 生産手段으로서의 資本財와는 根本的으로

15) Ibid., p. 1, 〈朱宗恒 譯, p. 3〉

16) Ibid., p. 2, 〈朱宗恒 譯, p. 4〉

17) Ibid., p. 336, 〈朱宗恒 譯, p. 435—36〉

다르다. 資本財는 勞動力이나 다른 資本財에 의해서 代替可能한 것이지만, 土地는 資本財나 勞動力에 의해서 代替시키기 어렵거나 거의 代替가 不可能하다. 설사 代替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代替에 드는 費用이 너무나 크나, 自然이나 土地의 制約을 벗어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이른바 施設農業과 같은 것이 없는 바 아니나, 自然條件을 克服하기 위해서 所要되는 費用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흔히 經驗하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田畠은 先祖代의 피땀어린 勞力の 結果 造成된 것이며, 畜産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草地들로 역시 莫大한 資本財와 勞動力의 投下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니우기 田畠이나 草地는 資本財나 勞動力과 달리 移動性이 없기 때문에 輸入에 의해서 國外로부터 補充받을 수도 없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國內農産物 價格을 國際價格과 比較함에 있어서는 그저 平面的인 比較에 依存해서는 안된다. 農産物輸入이 土産物輸入과 다른 점은 그것이 再生産 不可能하고 代替 不可能한 國內의 土地資源의 遊休化를 가져오게 된다는 데 있다. 工業에 있어서는 輸入은 國內의 資本과 勞動力을 다른 品目의 生産으로 移動케 함으로써 資源의 遊休化를 가져오지 않을 수로 있겠으나, 農業에 있어서는 代替가 거의 不可能하거나, 代替에 所要되는 費用이 너무나도 크고, 또 期間 역시 長期間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國內農産物價格을 國際價格과 比較함에 있어서는 輸入이 必然的으로 隨伴하게 될 土地資源의 遊休化에 따른 費用을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으로서 追加로 計上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產業으로 轉用不可能한 資本과 勞動力이 있다면 그것로 「農産物輸入의 機會費用」으로서 國際價格에 添加시켜야만 비로소 國內 農産物價格과의 合理的인 比較가 可能해지는 것이다.

經濟企劃院은 農畜産物の 輸入擴大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理論的 根據로서 「國內資源費用」(Domestic Resource Cost)의 概念을 내세우고 國內資源費用이 國際價格보다 비싼 경우에는 輸入을 開放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國內資源費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當該品目에 소요되는 生産費를 公認換率로 나누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農産物輸入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國內資源의 遊休化 내지 破壞에 따르는 上記한 「輸入의 機會費用」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國內資源費用을 國際價格과 比較함에 있어서 公認換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外貨는 아직도 稀少價値를 가지고 있으므로, 通常的인 換率보다는 높게 評價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

만큼¹⁸⁾ 그러한 비교의 방식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筆者는 勿論 모든 農産物을 自給自足해야 한다고 主張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一部分의 農産物이 輸入되더라도 過去에 그 農産物의 生産에 投入되었던 土地가 어느정도로 쉽사리 다른 作物으로 代替可能하여 거기에 對處해 나아갈 수 있는 경우에는 「輸入의 機會費用」이 比較的 낮을 수 있을 것이므로, 輸入의 충격은 比較的 적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程度가 지나쳐 一時에 너무나도 많은 種類의 農産物이 지나치게 많이 輸入됨으로써 資源의 轉用可能性마저 剝奪하게 될 경우에는 「輸入의 機會費用」은 엄청날 것이며, 輸入의 衝擊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經濟企劃院의 『80年代를 向한 새 戰略』에서 보더라도 唯獨 쌀의 경우만은, 설사 國際競爭力이 없다 하더라도 自給體制를 계속 維持하겠다고 한 것은 쌀 「輸入의 機會費用」이 엄청나게 크다는 데 對한 認識을 바탕으로 한 것이 分明하다. 그림에
로 不拘하고 餘他的 農産物에 關해서는 國際競爭力의 確保可能性이 없을 경우에는 「輸入의 機會費用」을 勘案하지 않는 가운데 모두 輸入을 開放해야 한다고 主張한다는 것은 論理의 一貫性이 없는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各 品目에 關해서 「輸入의 機會費用」을 勘案한 導入價格을 計算하여 그것을 國內價格과 比較하기 위해서는 老대한 作業이 必要하므로 實際的 計算은 이 小論의 範圍밖의 일이지만 國際價格에 「輸入의 機會費用」을 加算할 경우 大部分의 農産物은 輸入必要圈에서 脫落될 것은 거의 確實하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農産物은 大部分 企業에 의한 利潤追求의 對象으로서 生産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小農들의 生業으로서 生計維持를 目的으로 營營되고 있는데, 一時的으로 作況이 좋지 못하여 供給不足으로 國內價格이 騰貴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前년에 입은 損失을 補填하는 것 以上の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農畜産物의 어느정도 水準以上の 自給度の 維持는 安保上으로 重要할 뿐만 아니라, 國際農産物價格이 昂騰할 때, 國際市場에서 어느정도 有利한 交渉上의 高地를 確保하기 위해서로 必要하다. 그 하나의 좋은 例는 日本의 사탕무우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日本府政는 國內産 사탕무우와 原糖의 國際價格에 比較시 월등하게 높음에도 不拘하고, 一定한 國內自給度を 維持하기 위해서 莫大한 財政支出을 무릅쓰고 價格差補償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이 點과 關聯하여 特記할 事實은 著名한 美國의 農業經濟學者 G.D. Johnson이 나 日本의 土屋圭造도指摘한 바 있드시, 世界의 農畜産物貿易에 있어지는 強力한 寡占體制가 形成되어 있어 이들의 價格操作에 의해 國際價格이 暴騰한 危險성이

다분히 있다는 事實이다.¹⁹⁾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로 國內自給度の 어느 水準以上の 維持는 절대로 必要하다.

사실 過去の 經驗에 비추어 보면 國際商品은 그 必須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國內産에 의한 輸入代替能力이 缺如되어 있을수록 國內外 市場에서의 價格形成은 不安定한 要素를 內包하게 된다.²⁰⁾ 이런 意味에서도 國際間的 極端的인 分業特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自由市場機能을 살리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특히 쇠고기와 같은 것은 生産期間이 數箇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값싼 輸入肉의 導入으로 일단 生産基盤이 무너지면 그것을 回復하는 데는 長期間이 所要되고, 또 國際價格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여기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最近에 濠洲産 쇠고기값은 76年 7月の kg當 596원에서 79年 4月の 1,326원으로 約 2.1배나 비싸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그것은 더욱 비싸질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近者에는 쇠고기 輸出國機構를 形成하여 이것을 武器化하려는 움직임도 전해지고 있다.

日本農林省이 大學教授들의 協力을 얻어 1935년에 關하여 시뮬레이션模型에 의해 農産物需給을 豫測한 結果를 보면, 쇠고기의 國際價格은 1965年の kg當 0.94弗에서 1985년에는 2.78弗내지 5.07弗로 3배 내지 5.4倍로 暴騰하고, 쇠고기의 世界的 需給狀況도 樂觀을 不許하는 狀態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牛乳에 關해서도 國際價格은 1965年の kg當 0.094弗로부터 1985년에는 0.49弗 내지 0.80弗로 약 5.2배 내지 8.5배나 上昇할 것으로 豫測되어 있다. 또한 米穀에 關해서도, 國際價格은 1972年の 弗當 248.0弗로부터 1985년에는 最下 612.9弗乃至 最高 1,156.7弗로 약 2.5배 내지 4.7배나 上昇할 것으로 豫測되어 있다. 日本農林省의 시뮬레이션豫測結果가 만드시 的中하리라는 보장은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는 그다지 틀림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狀態 아래서 國際價格에 비하여 國內價格이 비싸다고 하여, 生産基盤의 붕괴는 아랑곳 없이 쇠고기나 粉乳 그 밖의 農畜産物의 輸入을 開放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政策인가는 再言의 餘地가 없다. 더욱기 값싼 輸入肉과 粉乳의 無制限 導入은 그것과 代替關係에 있는 돼지

19) G.D. ジョンソン, G.A. シュニツトカー編, 鹽崎二郎譯, 『世界とアメリカ農業』, 大田堂, 1977; 土屋圭造, 「世界の食糧問題と米國の農業政策」, 『經濟セミナー』1977年 9月號

20) 辻村江太郎, 「輸入自由化と國內生産の保護」, 『農業と經濟』1978年 7月號, pp. 42-49 <FAO 韓國協會, 『國際食糧農業』Vol. 21, No. 1, 1974, pp. 5-10에 譯載.

21) 日本農林省 世界農産物需給研究會編, 『世界需給モデルによる需給展望』, 農林統計協會, 東京, 1974.

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需要를 減少시킴으로써 國內畜產業의 總體의인 붕괴로 이끌
이갈 危險性이 있다는 것은 昨今에 우리가 여실히 經驗한 바와 같다.²²⁾

勿論 國際價格에 比해서 國內價格이 비싼 農產物에 關係해서는 生産性を 끌어 올
림으로써 國內價格을 낮추려는 努力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農畜產
物의 向上은 손쉽게 機械化할 수 있는 工業의 경우와는 달리, 巨額의 投資와 長
久한 時日을 要한다. 生産性 向上을 할 수 있는 興作造成을 위한 時間的 餘裕를
주지 않는 가운데 生産성이 낮으니까 輸入을 自由化하여 外國產 農產物로 需要를
充當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發想이다.

오늘날 人口에 比하여 土地가 豊富한 一部少數의 나라들을 除外하고 農畜產物의
輸入을 自由化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農產物輸入의 自由化를 實
現한 EC 여러 나라들조차도 城內貿易의 自由化를 이룩하는 데는 20年 以上の 歲
月이 所要되었다.

輸入自由化率이 높은 日本에서도 國際의 壓力 때문에 다른 品目들은 거의 모두
自由化 됨으로써 不拘하고, 農畜水產物만은 完全한 自由化를 實現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또 農畜水產物의 輸入擴大를 自國產品의 輸出增大를 위한 代價대로 利用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敎訓의이다.

農畜產物의 輸入自由化에 의한 物價安定戰略은 오늘의 物價安定을 위해서 來日
의 보다 큰 物價上昇을 自招하는 結果가 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輸入擴大→國內
生産萎縮→物價上昇→輸入擴大라는 惡循環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物價安定을 위한 產業政策으로서 는 오히려, 獨資占品目의 輸入擴大를 통한 競爭
體制로의 轉換과 이를 契機로 한 生産性 向上, 中小企業의 育成, 農業生産基盤의
整備, 流通構造의 改善등에 力點을 두는 것이 올바른 方向設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1978年의 쇠고기의 大量輸入으로 소값은 1978年 8月에 肥肉牛 90kg 한 마리 710,000
원 하던 것이, 輸入의 영향으로, 79년 봄에는 647,000원으로 떨어졌고, 肥肉豚 90kg
한 마리에 10만원 하던 것이 9만원으로, 肉鷄는 kg당 745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떨어
졌다. (民主共和黨政策研究室, 『農政의 當面問題에 對한 建議』, 프린트版, 1979年 6月
p. 16) 이리하여 畜產學者들은 사료값도 안나오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는가 하면, 일
부에서는 병아리를 生埋葬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